

huni

PLAY BOOK !

2026 6월 모의고사 대비
"유형별 전략집"



김지훈 영어강사



@huni.ssam



수능 영어의 정답, 김지훈

現 대치동 1등 수능 영어 컨텐츠, (주) LearnCraft 대표
現 대치 미래탐구 수능 영어 대표강사
現 목동 PGA 본원 수능 영어 대표강사 (20-22 마감)
現 중계 학림 수능 영어 대표강사
現 SBS 학습 예능 '재수 서바이벌'이 선택한 수능 영어강사
前 대치 이강, 대치 명인, 반포 세정, 이투스
'김지훈T' 수강생 10명 중 7명은 수능날 1등급을 받았습니다!
*72.3% (2020~2022 수강생 비율)

대의파악

PLAYBOOK

01. 대의파악

정답은. 자리가 있다.

필자는 단 하나의 이야기를 위해 문장을 결합한다.
그 하나의 메시지가 다양한 표현으로 반복될 뿐이다.

1. 평가원이 제시하는 매뉴얼

[2020학년도 학습안내]

글의 전체를 빠른 속도로 훑어 읽어 가며 글쓴이가 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020학년도 학습안내]

글의 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글을 빠르게 읽어 가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가원이 직접 요구하는 두 단어는 빠르게와 반복이다. ‘꼼꼼한 정독’은 평가원이 한 번도 권고한 적이 없다.

2. 출제 원리

수능 영어의 모든 지문은 단일 정보의 원칙(One Paragraph, One Topic)을 따른다. 필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위해 문장들을 논리적으로 결합한다.

따라서 대의파악 문항은 단순한 해석력 평가가 아니라, 복잡한 정보들 속에서 '핵심 가치'와 '지엽적 정보'를 구분하는 선별력을 측정한다. 모든 문장을 동일한 비중으로 읽는 학생이 아니라, 흘릴 정보를 흘릴 줄 아는 학생이 1등급을 받는다.

3. 핵심 도구 5선

[H-1] 두괄식 가정의 원칙

수능 지문은 기본적으로 두괄식 구조를 따른다. 첫1~2문장에서 소재(Topic)와 방향성(+/-)을 확정하고, 본인의 언어로 '이름표'를 부여한다. 도입부의 이름표 없이 진입한 본문은 작업 기억에서 튕겨 나가기 쉽다.

예외 : 통념 - 반박 구조에서는 첫 문장이 통념, 반박 이후가 주제다.

단, 통념의 소재는 정답에 반드시 포함된다.

[H-2] 정답 공식 소재(Topic) + 속성(Comment)

대의 파악의 정답은 다음 공식을 따른다.

$$\text{Main Idea} = \text{Topic(소재)} + \text{Comment(필자의 견해)}$$

소재만 있는 선지, 속성만 있는 선지는 모두 오답이다. 두 요소가 모두 충족된 선지만이 정답 후보가 된다.

[H-3] 평가원의 4대 함정

평가원이 오답을 설계하는 방식은 정형화되어 있다.

함정	특징	출제 빈도
Too Broad	지문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다룸	중
Too Narrow	예시·일부분만을 다룸(최다 오답)	상
Irrelevant	지문의 단어를 사용했으나 논리가 어긋남	중
Opposite	필자의 주장과 정반대(역선지)	하

특히 선지에 구체적 고유명사(국가명, 인물명, 제품명 등)가 등장하는 경우 90% 이상이 Too Narrow 함정이다.

[H-4] 비유적 제목의 해독

제목(Title) 유형에는 은유와 상징 표현이 자주 출제된다. 단어를 1:1로 매칭하지 말고, 소재와 속성을 비유적으로 풀어낸 표현으로 해석한다.

"Beyond Mere Necessity: The Rise of Food Culture"

→ '단순 필요를 넘어선 음식 문화의 부상'

"Double-edged Sword: Technology in the Classroom"

→ '교실 내 기술의 양면성'

[H-5] 4대 지문 구조 답의 좌표

첫 문장의 시그널만으로 답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다.

구조	시작 시그널	답의 위치
통념-반박	Many people / traditionally / assume	However 이후
문제-해결	부정적 상황·문제 제시	Therefore 이후
Q&A	의문문 제시	다음 문장의 답변
일반-예시	일반 진술 + For example	For example 직전

4. 실전 적용 |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3번 (주제)

The purpose of class discussions is to encourage you to be an active participant, not a passive recorder. Much of the emphasis in a discussion is on getting students involved in thinking, reacting, and responding. These are important intellectual activities in the learning process, for through them you are supposed to discover and express your opinions. Writing is an invaluable tool for accomplishing these tasks. Unfortunately, too many times, when class discussion begins, pens and pencils go down. Admittedly, it is considerably more difficult to take notes from discussions than from lectures, for, unlike lectures, discussions tend to be disorganized and difficult to follow. Also, students usually don't know how much of what other students are saying is important. And if you are an active participant, it is not easy to take notes and formulate what you want to say. But note taking in discussions is not only manageable, it is also important. Note taking helps to keep you active and alert; it allows you to impose some organization on the discussion; and it can prepare you to speak.

* impose: 부과하다

- ① reasons to standardize procedures for class discussions
- ② strategies to improve note-taking skills for public speaking
- ③ significance of note taking for active engagement in discussion
- ④ effectiveness of summarizing and reviewing notes after class
- ⑤ benefits of brainstorming to generate ideas for writing tasks

Step 1 | 도입부 2문장 - 배경 설정

- 소재: **class discussions**(수업 토론)
- 방향: **active participant, not a passive recorder**(적극적 참여자가 되어야 함)
- 이름표: "수업 토론에서는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두괄식 구조. 첫 문장에 정답의 절반이 이미 노출되어 있다.

Step 2 | 시그널 체크 - 답의 좌표 확정

- **Unfortunately**(5번째 문장): 문제 제기 토론이 시작되면 학생들이 펜을 내려놓는다는 사실 지적
- **Admittedly**: 양보 - '토론 노트 작성이 어렵다'는 점을 일부 인정
- **But**(양보 직후): 역접이 지점이 정답의 핵심 좌표
- 마지막 문장: 노트 작성의 3가지 효과(재진술을 통한 주제 강화)

Step 3 | 소재 + 속성으로 정답 검증

- 추출된 소재: **note taking**(노트 작성)
- 추출된 속성: **active participation**에 필수(적극적 참여에 중요함)

Step 4 | 선지 분석

선지	소재	속성	판정
① reasons to standardize procedures for class discussions	△ discussions만 일치	× 표준화는 지문에 없음	Irrelevant
② strategies to improve note-taking skills for public speaking	△ note-taking 일치	× public speaking은 지문 밖	Irrelevant
③ significance of note taking for active engagement in discussion	✓ note taking + discussion	✓ significance, active engagement	정답
④ effectiveness of summarizing and reviewing notes after class	△ note 일치	× 수업 후 복습은 지문에 없음	Irrelevant
⑤ benefits of brainstorming to generate ideas for writing tasks	× brainstorming은 지문에 없음	×	Irrelevant

→ 정답 ③. 첫 문장의 'active participant'가 선지의 'active engagement'로, 본문의 'note taking'이 그대로 보존된 전형적 두괄식 정답이다.

5. 빈출 함정 BEST 3

함정1 | 예시 단어에 끌려가는 경우

지문 내 단 한 번 등장한 예시 어휘가 선지에 포함되면 학생의 손이 그쪽으로 향한다. 그러나 예시는 본문의 일부분이지 주제가 아니다. 평가원이 만드는 Too Narrow 함정의 80%가 이 패턴에서 발생한다.

함정2 | 본문 단어가 그대로 박힌 선지

정답 선지는 철저하게 재진술(Paraphrasing)된다. 본문의 어휘가 그대로 노출된 선지는 오히려 함정일 확률이 높다. '익숙해 보이는 선지'를 만나면 한 번 더 검증해야 한다.

합정3 | 통념을 주제로 선택하는 경우

"Many people think..."로 시작하는 지문에서 'Many people think'의 내용 자체를 정답으로 선택하는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 통념-반박 구조에서 주제는 반박부에 있으며, 위치는 항상 **However** 이후다.

6. 시험장 체크리스트

※ 목표 시간 : 문항당 40~50초

- 첫 1~2문장에서 소재 + 방향성(+/-)을 확정하고 이름표를 부여하였는가?
- 지문의 구조를 4대 패턴 중 어느 하나로 분류하였는가?
- 핵심 시그널(However / Therefore / 질문 / For example)의 위치를 표시하였는가?
- 5개 선지를 '소재 + 속성' 공식으로 모두 검증하였는가?
- 구체적 고유명사가 포함된 선지를 Too Narrow로 의심하였는가?
- 본문의 어휘가 그대로 노출된 선지를 재검증하였는가?

시험장 명령 ★

꼼꼼히 읽지 않는다. 메시지는 반복된다.

첫 두 문장, 시그널 직후, 마지막 한 문장 → 이 세 지점이면 충분하다.

어휘추론

PLAYBOOK

02. 어휘추론

단어의 뜻이 아닌, 문맥의 방향이다.

어휘추론은 단어 시험이 아니라 논리게임이다.

정답은 항상 글의 흐름 위에 놓여 있다.

1. 평가원이 제시하는 매뉴얼

[2018학년도 학습안내]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고 글의 전체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문맥을 활용하여 어휘의 의미를 유추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2018학년도 학습안내]

단순히 어휘의 사전적인 의미를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글의 중심 내용과 흐름을 고려하여 문맥에 어울리는 적절한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평가원은 어휘 문제에 대해 두 가지를 명시한다. 첫째, **전체적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것**. 둘째, **사전적 의미가 아닌 문맥적 의미를 사용할 것**. 즉, 어휘 문제는 단어의 뜻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글의 흐름 안에서 단어가 차지할 자리를 묻는 문제다.

2. 출제 원리

수능 어휘 문제는 학생이 어려운 단어를 많이 아는지 묻지 않는다. 대신, **글의 흐름상 이 자리에 이 방향성의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가**를 묻는다. 출제의두 축은 다음과 같다.

- 1) **일관성의 원리** — 모든 밑줄은 지문의 주제(Main Idea)와 같은 결이어야 한다. 다른 결의 단어가 들어간 자리가 정답.
- 2) **응집성의 원리** — 밑줄 친 문장의 앞·뒤 문장에는 반드시 그 단어가 정답임을 증명하는 근거(Clue)가 배치되어 있다.

평가원이 가장 즐겨 쓰는 설계 방식은 **반의어 치환**이다. 긍정/부정, 증가/감소, 지속/일시, 보편/특수 같은 명확한 대립 개념을 활용한다. 따라서 어휘 풀이는 본질적으로 **방향성(+/-) 판별 게임**이다.

3. 핵심 도구 5선

[I-1] 초반 3줄에서 주제 확정

1번 밑줄이 등장하기 전까지 보통 두세 문장의여유가 있다. 이 구간에서 **정답의 기준선**이 되는 **주제(MainIdea)**를 반드시 **확정**해야 한다. 주제 없이 밑줄로 진입하면

주제가 확정되면 5개의 밑줄은 단어 시험이 아니라
'주제와 같은 결인가'를 확인하는 5번의 검증 작업으로 바뀐다.

[I-2 / I-3] 선지 검증주제 대응과 후 맥락

모든 선지는 두 단계로 검증한다.

1단계 주제와의 대응: 밑줄 단어가 주제와 같은 결로 진행하는가? 같은 결이면 정상, 어긋나면 의심한다.

2단계 후 맥락 근거: 주제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밑줄 직후 문장에서 근거를 확보한다. '앞 문장이A를 말하므로 뒤 문장은A를 부정하는 흐름이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적 연결을 활용한다.

[I-4] 사전적 정의가 아닌 문맥적 뉘앙스

단어의 사전적 정의에 고정되면 오답으로 끌려간다. 같은 단어라도 **문장 내 쓰임새와 뉘앙스**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평가원이 자주 활용하는 뉘앙스 사례는 다음과 같다.

단어	학생들의 1차 해석	문맥적 의미
exceptional	예외적인	대단한, 특출난
struggle	투쟁하다	안간힘쓰지만 잘 안 된다 (부정 뉘앙스)
comparable cost	비교 가능한 비용	감당 가능한 합리적 비용
accommodate	수용하다	관리하지 않다, 그냥 두다 (rather than 맥락)
self-contained	자체 포함된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어휘는 사전이 아니라 맥락이 결정한다. 1차 정의가 어색하면 2차, 3차 의미까지 열어두고 흐름에 맞는 의미를 선택한다.

[I-5] 이항 대립을 통한 미지 단어 처리

수능 영어 지문의70% 이상은 두 가지 대립되는 개념을 비교·대조하는 구조다. **필자가 어느 진영을 지지하는지만 파악하면, 밑줄 단어의 정확한 뜻을 몰라도+/- 방향만으로 정답 도출이 가능**하다.

분류	긍정 키워드	부정 키워드
방향성	increase / promote / enhance	decrease / hinder / reduce
태도	accept / embrace / endorse	reject / dismiss / oppose
성격	universal / common / shared	unique / specific / isolated
인과	cause / trigger / lead to	prevent / block / stop
지속성	lasting / permanent / enduring	temporary / fleeting / transient

밑줄 단어가 헛갈리면 반대말을 대입해 본다.
반대말이 더 자연스러우면 그 자리가 정답이다.

[I-6] 상식 즉시 판단

상식적으로 명백히 어긋나는 선지는 별도의 논리 분석 없이 즉시 소거한다. 출제자 역시 사람이며, 글 전체의 상식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함정은 출제하지 않는다.

예 : ‘살충제 업계는 살충제가 [필요하다/불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살충제 업계가 살충제를 불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별도 분석 없이 ‘necessary’가 정답이다.

4. 실전 적용 |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0번

Gaining an audience for your writing involves not just finding a voice but ensuring that voice resonates with your intended readers. Entrepreneur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brand that makes them memorable and distinct from their competitors drawing customers to their products or services. They achieve this by ① pinpointing their target audience, crafting a unique value proposition, and shaping a recognizable identity. While scholars might initially find these entrepreneurial concepts ② alien, they actually engage in similar practices when they set themselves apart in their academic writing. Consider the typical literature review and motivation section of a scholarly article - the aim is to highlight ③ gaps in existing research and position oneself as the one who will address these overlooked areas. The challenge, as Labaree suggests, is not just in developing innovative ideas but in ④ cultivating a distinctive voice that makes readers think, "Ah, this sounds like [the author]." It's about balancing the expression of your ideas with the development of a unique voice that leaves a ⑤ temporary impression on your audience.

* resonate : 공명하다 ** entrepreneur : 기업가

- ① pinpointing ② alien ③ gaps ④ cultivating ⑤ temporary

Step 1 | 초반3줄에서 주제 확정

- 1번 문장: voice resonates with intended readers 자신의 목소리가 독자에게 공명해야 함
- 2번 문장: 기업가는 memorable, distinct, recognizable한 브랜드를 만든다
- 추출된 주제: 글쓰기 독자에게 강하게 기억되는 독특한 목소리 만들기

→ 핵심 방향성: 지속성(+), 차별성(+), 기억(+)

Step 2 | 이항 대립 진영 정리

긍정 진영(필자 지지)	부정 진영(반대 결)
memorable, distinct, recognizable, unique, resonate, lasting	forgettable, generic, indistinct, temporary, fleeting

Step 3 | 밑줄 5개 검증

밑줄	맥락	주제 대응	판정
① pinpointing	기업가가 타깃 독자를 정확히 짚어냄	✓ 차별화·정밀화의 결	정상
② alien	학자들이 처음엔 기업가 개념을 낯설게 느낌	✓ '처음에는 낯설다' 양보 맥락	정상
③ gaps	기존 연구의 빈틈을 강조 그것을 채울 자로 자리매김	✓ 차별화(distinct)와 동일 결	정상
④ cultivating	독특한 목소리를 키워나감	✓ '독특한 목소리 만들기' 주제 직결	정상
⑤ temporary	독자에게 '일시적' 인상을 남김	x 주제(memorable, lasting)와 정반대	정답

Step 4 | 정답의 논리

주제는 "독자에게 강하게 남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만들어라"이다. 그런데⑤가 포함된 마지막 문장은 "unique voice가 독자에게 일시적(temporary) 인상을 남긴다"라고 진술한다. 이는 글 전체의 방향성과 정면으로 어긋난다. 올바른 단어는 lasting (지속적인)이다.

→ 정답 ⑤ temporary.

I-1(주제 확정), I-5(이항 대립), I-6(상식 판단) 세 도구가 동시에 작동하는 전형적 어휘 문항이다.

5. 빈출 합정 BEST 3

합정1 | 사전적 정의 합정

평소 외운 1차 의미가 문장에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학생은 그대로 통과시킨다. 그러나 평가원은 같은 단어의 2차·3차 의미를 활용하여 합정을 만든다. 'comparable cost'를 단순히 '비교 가능한 비용'으로 읽지 말고 '감당 가능한 비용'까지 열어두어야 한다.

합정2 | 부분 문장만 보고 판단

밑줄이 포함된 한 문장만 보면 모든 선지가 자연스러워 보인다. 평가원은 글 전체의 흐름속에서만 정답을 가려낼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한다. 항상 주제(기준선)를 먼저 잡고, 그 기준선에 비추어 밑줄을 검증해야 한다.

합정3 | 상상력 기반 추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주관적 추정은 항상 오답으로 연결된다. 평가원은 반드시 지문 내에 객관적 근거를 남긴다. 본문에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해석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 폐기 대상이다.

6. 시험장 체크리스트

※ 목표 시간 : 문항당 50초 (3점 문항)

- 1번 밑줄에 도달하기 전, 초반 3줄에서 주제와 방향성(+/-)을 확정하였는가?
- 지문이 이항 대립 구조인지, 어느 진영이 필자의 지지를 받는지 파악하였는가?
- 5개 밑줄을 모두 '주제와 같은결인가'의 기준으로 검증하였는가?
- 주제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밑줄은 후 맥락(직후 문장)에서 근거를 확보하였는가?
- 헛갈리는 밑줄에는 반대말을 대입하여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지 확인하였는가?
- 사전적 1차 의미가 어색하다고 느낀 단어를 2차 의미까지 열어두었는가?
- 상식적으로 어긋나는 선지를 우선 소거 후보로 분류하였는가?

시험장 명령 ★

단어가 아니라 방향을 본다.

주제와 같은 결인가 다른 결인가 → 이 한 가지 질문만 다섯 번 반복한다.

순서배열

PLAYBOOK

03. 순서배열

시작 찾지 말고, 시작 안 되는 것을 지워라.

순서배열은 독해가 아니라 쓰기다.

해석이 아니라 시그널이다.

1. 평가원이 제시하는 매뉴얼

간접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시사 문제 등의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며 글의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 및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 고리뿐 아니라 내용상의 연결 방식을 파악해 보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평가원이 직접 정의한 순서배열의 본질은 두 가지다. 첫째, **간접 쓰기 능력**이다 — 즉 독해 시험이 아닌 쓰기 시험이다. 둘째, **명시적 단서(연결사·지시어·대명사)와 내용상의 연결**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해석으로 풀려 하면 함정에 빠진다.

2. 출제 원리

순서배열 문항은 본질적으로 **논리적 응집성(Cohesion)**을 측정한다. 평가원은 한 편의 글을 의도적으로 세 토막으로 자른 뒤, 각 토막의 경계에 **복원 단서(restorative cue)**를 반드시 심어둔다. 이 단서는 두 층위로 나뉜다.

1) **명시적 단서 (형태)**: 지시사, 정관사, 대명사, 연결사, Then, And 등 — 단어의 형태 자체가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를 강제한다.

2) **내용적 단서 (논리)**: 큰 범주 → 작은 범주, 문제 → 원인 → 해결, 시간 순서, 추상 → 구체 등 — 정보의 흐름이 따라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다.

한국어로 옮긴 뒤 "이게 자연스럽네"라고 판단하는 순간 출제자의 함정에 빠진다. **B-C-A도 말이 되는 것** 같고 **C-B-A도 말이 되는 것** 같은 이유는 **해석으로 풀고 있기** 때문이다. 정답은 단 한 가지의 형태적·논리적 단서 조합으로만 도출된다.

3. 핵심 도구 5선

[L-1] "쓰기" 영역 인식 - 시그널 게임

순서배열은 해석력 평가가 아니다. **철저하게 형태적 시그널을 찾는 쓰기 영역**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자"는 본능을 차단하는 것이다. 해석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단서의 정합성으로 푼다.

[L-2] 첫 문장 + 마지막 문장 스캐닝

지문 전체를 읽지 않는다. 다음4단계로 처리한다.

- ① 박스 글 읽기마지막 문장의 소재와 방향성(+/-) 확인
- ② A/B/C의 첫 문장만 스캐닝지시사,대명사, 연결사 등 시그널 표시
- ③ 시작점 불가 항목 소거L-3 적용
- ④ 남은 항목의 끝 문장다음 단락의 첫 문장 연결 확인단서가 맞물리는지 검증

지문을 다 읽고 있다면 이미 시간을 잃은 것이다.
평가원이 단서를 심어둔 위치만 보면 된다.

[L-3] 시작점 소거법

시작점을 찾으려 하지 말고, **시작이 될 수 없는 것을 먼저지운다**. 시작 후보A·B·C 중 두 개를 소거하면 나머지 하나가 시작점이다. 시작점 불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시그널 형태	시작 불가 조건
지시사 + N	(This/These/Such/That + 명사) 박스 글에 그 명사 없음
대명사	(They/She/He/It) 박스 글에 받을 명사 없음 (단복수 일치까지 확인)
정관사 The + N	박스 글에 그 N이 처음 등장하지 않았음 (a/an 없음)
Then	박스 글에 그 주어가 없음
And + 병렬	박스 글에 대응되는 병렬 대상 없음
Instead / Rather	박스 글에 부정어(Not/Never/Fail to) 없음
To be + 형용사	박스 글에 그 형용사 개념이 없음
Also / Moreover	박스 글에 첨가될 화제가 없음 (Also는 첫 단락이 될 수 없음)

[L-4] 명시적 단서 8종 - 빠른 매칭

L-3에서 시작점을 소거한 뒤, 남은 단락들의 연결을 명시적 단서로 빠르게 매칭한다.

단서	역할	확인 사항
지시사 + N (This / Such)	앞 단락 전체 또는 마지막 문장의 요약	그 N에 해당하는 내용이 직전에 있는가
정관사 The + N	이미 한 번 언급된 N	직전에 a/an으로 처음 도입되었는가
대명사 (They / It)	앞 문장의 명사 지칭	단·복수까지 정확히 일치하는가
연결사 (However / Therefore)	앞 단락과의 논리 관계	역접·인과·추가의 방향이 맞는가
latter / former	앞에 두 가지가 제시되어야	두 대상이 직전 단락에 모두 있는가
A of B 구조	B가 핵심 소재	B가 직전 단락에 등장했는가
시제 변화 (과거 ↔ 현재)	단절 또는 시점 전환 지점	시제가 바뀌는 경계가 어디인가
재진술 (구체 → 추상)	구체적 사례를 추상적 명사로 요약	the process / this tendency 등으로 묶이는가

최근 수능은 단순 'a → the' 패턴을 넘어, 구체적 상황 전체를 *the process, this tendency, such a phenomenon* 같은 추상 명사로 요약하여 연결하는 출제가 늘고 있다.
표면적 관사보다 의미적 응집성을 추적해야 한다.

[L-5] 내용적 흐름 - 큰 범주 → 작은 범주

명시적 단서가 약하거나 두 단락이 동시에 가능해 보일 때, **정보의 추상도와 시간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추상 → 구체: 포괄적 진술 다음에 사례·예시·수치가 따라온다
- 시간 순: 과거 → 현재 → 미래, 또는 큰 시간 단위 → 작은 시간 단위
- 논리 순: 문제 제기 → 원인 분석 → 해결책(논설문 기본 구조)
- 상위하위: 포유동물 → 개·고양이·소처럼, 상위 범주가 먼저 등장한다

4. 실전 적용 |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6번

【주어진 글】 *If we take an evolutionary look at our beginnings, we see a life in which high levels of physical activity were required for survival.*

(A) *There are fewer manual jobs, we do not need to travel on foot, we do not need to hunt and harvest for our food, and many domestic chores have been mechanized. While these changes have created many benefits for our longevity and quality of life, they have also created many problems.*

(B)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has now been linked to at least 17 unhealthy conditions, almost all of which are chronic diseases or considered risk factors for chronic diseases. Adrienne Hardman has summarized this serious situation for public health: "Physical inactivity is a waste of human potential for health and well-being."*

(C) *Even one century ago, most people needed to be physically active to work, to travel, and to take care of homes and families. Our modern world has engineered such activity out of our lives.*

* chore: 일 ** chronic: 만성

-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⑤ (C)-(B)-(A)

Step 1 | 박스글 마지막 문장의 단서 추출

- 소재: physical activity (신체 활동)
- 방향성: 진화적 관점에서 생존을 위해 높은 신체 활동이 필요했음(+)
- 핵심 시제: 과거(were required)

Step 2 | A·B·C 첫 문장 스캐닝 시작점 소거

단락	첫 문장 시그널	판정
(A)	<i>There are fewer manual jobs...</i> + "these changes"	x 박스에 changes 없음, 현재 사례가 갑자기 등장
(B)	<i>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has now been linked to...</i> + "this serious situation"	x 신체 활동 부족이 이미 문제로 묶여 등장, 박스에 situation 없음
(C)	<i>Even one century ago, most people needed to be physically active...</i>	✓ 진화적 시작점에서 100년 전으로 시간 자연스럽게 좁힘

→ 시작점은 (C). L-5의 "큰 시간 단위 → 작은 시간 단위" 원리도 일치한다.

Step 3 | (C) 다음 연결 확인

(C) 끝 문장: "Our modern world has engineered such activity out of our lives."

→ 현대에 신체 활동이 사라졌다.

(A) 첫 문장: "There are fewer manual jobs, we do not need to travel on foot..."

→ (C)에서 말한 "engineered out"의 구체적 사례들이 등장.

(A)의 후반부: "these changes have created many benefits... they have also created many problems."

→ "these changes"가 (C)의 변화를 받아 정확히 매칭된다.

→ (C) → (A) 연결 확정.

Step 4 | (A) 다음 연결 확인

(A) 끝 문장: "...they have also created many problems."

→ 다음에는 problems의 구체화가 와야 한다.

(B) 첫 문장: "Lack of sufficient physical activity has now been linked to at least 17 unhealthy conditions..."

→ many problems의 구체적 수치(17가지 질병)로 정확히 매칭. "this serious situation"도 (A)의 problems를 받음.

→ (A) → (B) 연결 확정.

Step 5 | 정답 도출

순서	연결 단서
박스 → (C)	진화적 시작점 → 100년 전 (큰 시간 → 작은 시간, L-5)
(C) → (A)	engineered such activity out → fewer manual jobs (구체화) + "these changes" 지시사 (F-1)
(A) → (B)	many problems → 17 unhealthy conditions (구체화) + "this serious situation" 지시사 (F-1)

→ 정답 ④ (C) - (A) - (B). 시작점 소거(L-3)와 지시사 매칭(F-1)이 정확히 작동하는 표준 유형이다.

5. 빈출 함정 BEST 3

함정 1 | 해석으로 푸는 경우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게 자연스럽네"라고 판단하는 순간 함정이다. 평가원은 의도적으로 B-C-A도 말이 되고 C-B-A도 말이 되도록 설계한다. 두 가지가 동시에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명시적 단서를 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합정 2 | 관사·대명사 미관찰

타임 어택에 쫓기는 학생들은 the, this, they 같은 미세 단서를 그냥 지나친다. 그러나 **1등급을 가르치는 차별점은 관사에 있다.** a → the 패턴 하나로 단락 위치가 확정되는 경우가 많다.

합정 3 | Also로 시작하는 단락을 첫 번째로 선택

Also, Moreover, Inaddition, Furthermore로 시작하는 단락은 **절대 첫 번째 단락이 될 수 없다.** 첨가의 시그널은 앞에 첨가될 화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동일하게But, Yet도 첫 번째 단락이 될 수 없다.

6. 시험장 체크리스트

※ 목표 시간 : 문항당 90초

- 박스 글의 마지막 문장 소재와 방향성을 파악하였는가?
- A·B·C 각 단락의 첫 문장만 스캔하여 시그널을 표시하였는가?
- 지시사·대명사·연결사·정관사 4종 단서를 빠짐없이 체크하였는가?
- 시작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시작 불가 항목을 먼저 소거하였는가?
- 각 단락의 끝 문장과 다음 단락의 첫 문장이 명시적 단서로 맞물리는지 검증하였는가?
- 한국어 번역에 의존하여 "자연스러움"으로 판단하지 않았는가?
- Also·Moreover·But으로 시작하는 단락을 첫 번째로 두지 않았는가?

시험장 명령 ★

읽지 말고 본다.

박스 끝 + 세 단락의 첫 문장. 시작 안 되는 것을 지운다. 그게 끝이다.

문장삽입

PLAYBOOK

04. 문장삽입

내용을 예측하지 마라. 단절을 찾아라

문장삽입은 지문 전체 이해가 아닌,
선택지 앞뒤 두 문장의 단타 싸움이다.

1. 평가원이 제시하는 매뉴얼

간접 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문학, 시사 문제 등의 다양한 소재의 글을 읽으며 글의 중심 내용과 전개 방식 및 문장 간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또한 명시적 단서인 연결사, 지시어, 대명사 등의 연결 고리뿐 아니라 내용상의 연결 방식을 파악해 보는 연습도 효과적입니다.

문장삽입은 순서배열과 같은 간접 쓰기 영역이다. 평가원은 지문에서 문장 하나를 뽑아낼 때, 그 문장이 빠짐으로써 발생하는 부자연스러움(단절)이 반드시 존재하도록 설계한다. 정답은 그 단절이 발생한 지점이다.

2. 출제 원리 - 두 가지 단절

평가원이 만드는 단절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학생은 이 두 가지 유형만 식별하면 된다.

1) **명시적 단절 (형태)**: 지시어(this, these, such)나 정관사(the + N)가 가리키는 대상이 바로 앞 문장에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시각적으로 검출 가능한 단절이다.

2) **내용적 단절 (논리)**: 앞 문장과 뒷 문장의 소재 혹은 태도(+/-)가 갑자기 급변할 때 발생한다. 연결사 없이 흐름이 바뀌면 그 자리가 정답이다.

이 외의 풀이 전략은 모두 함정으로 가는 길이다.
특히 "전체 내용을 이해한 뒤 답을 추론하겠다"는 접근은
평가원이 가장 잘 잡아내는 함정이다.

3. 핵심 도구 5선

[K-1] "단타 싸움" 인식전체 이해 불필요

문장삽입은 지문 전체의 이해를 요구하지 않는다. 최근 평가원은 의도적으로 선택지를 기준으로 그 순간의 앞뒤 연결만을 문도록 설계한다. 다섯 개의 선택지는 각각 독립적인 미니 시험이며, 학생은 다섯 번의 "앞-뒤 연결 검증"만 수행하면 된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문장 삽입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내용을 예측하고 그에 따라 풀기 때문이다. 단타로 푸는 학생만 1등급에 진입한다.

[K-2] 박스 문장 시그널 분석 - 모든 답의 출발점

박스(주어진) 문장이 모든 정보의 시작점이다. 박스 문장을 먼저 분석하고 지문에 진입하지 않으면 정답이 보이지 않는다. 박스 문장에서 추출해야 할 단서는 다음과 같다.

박스 내 시그널	앞 문장에 있어야 할 것
However / But / Yet	역접되는 반대 방향의 진술
Instead / Rather	부정어(Not / Never / Fail to)가 포함된 진술
Therefore / Thus	결론을 도출할 근거 또는 원인
This / These / Such + N	N에 해당하는 개념·상황이 직전에 등장
The + N (처음 등장처럼 보임)	N이a/an으로 이미 한 번 도입됨
대명사(They / It)	단·복수까지 일치하는 명사가 직전에 있음
Also / Moreover	같은 결의 첨가될 화제가 직전에 있음

두 시그널이 동시에 등장하면(예: "However, this finding suggested...") 두 단서를 모두 만족해야 정답 위치가 된다. 즉, 앞 문장은 반대 방향 진술이면서 ② 'finding(연구 결과)'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K-3] 명시적 단절 지칭의 부재

박스 문장에 지시사 + N이 있다면, 그N에 해당하는 내용이 바로 앞 문장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지문 전체의 어딘가가 아니다. "바로" 앞이다. 따라서 ①~⑤ 중 그N이 직전에 없는 지점이 정답이 된다.

예시박스: "This knowledge has empowered them..."
 → 정답 위치는 앞 문장에 'knowledge'에 대한 내용이 있고,
 ② 동시에 정답 위치 바로 앞 문장에는 'knowledge' 언급이 없는 지점이다.

[K-4] 내용적 단절 - 긍정 ↔ 부정 급전환

명시적 단서가 약한 경우 백업 전략으로 사용한다. 흐름이 긍정에서 부정으로(또는 그 반대)갑자기 전환되거나, A 소재에서B소재로 급변하는 지점이 정답이다.

단절 유형	특징
방향 전환(+/-)	긍정적 진술이 이어지다가 갑자기 부정적 진술 등장(연결사 없이)
소재 전환	A에 대해 논하다가 갑자기B에 대한 진술 등장
시제 전환	과거 시제 흐름에서 현재 시제로(또는 반대로) 급변
주체 전환	주어가 사람에서 사물로, 단수에서 복수로 갑자기 바뀜

[K-5] 시험장 미세 규칙 - 함정 방지

실전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보조 규칙들이다.

- **However 연속 불가:** 박스에 However가 있고 어떤 선택지 직후 문장도 However로 시작한다면, 그 선택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 평가원은 동일 연결사를 연속 배치하지 않는다.
- **Yes / Of course = 양보:** Yes·Of course로 시작하는 문장은 양보구조이므로 직후에 But이 등장한다. 박스가 But으로 시작하면 직전에 양보 진술이 있어야 한다.
- **박스 ≠ 주제문:** 박스 문장 자체는 일반적으로 글의 중심 내용이 아니다. 흐름의 전환점 또는 보충 정보다. 따라서 박스를 "주제처럼" 읽으면 안 된다.
- **①·② 선호 함정:** 학생들이 ①·②를 무의식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나, 평가원은 ③·④에 정답을 배치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더 많다. 위치 편향에 끌리지 말 것.

4. 실전 적용 |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38번

【주어진문장】 But cute and beautiful designs also have downsides.

Research finds that people show a strong visceral interest in and desire to approach and own cute-looking and beautiful (elegant) designs. (①) However, cute and beautiful designs elicit two very different motivations. (②) A cute product or package design elicits a nurturing motivation — a desire to take care of and keep the product, to hold it dear to our hearts and never let it go. (③) The beautiful product or package design elicits a self-expressive, or signaling, motivation — a desire to express oneself to others through product ownership. (④) Certain types of cute products can be associated with a lack of sophistication or seriousness, which can reduce performance expectations. (⑤) Beautiful-looking designs may not attract attention over time because people become desensitized to them.

Step 1 | 박스 문장 시그널 분석

- But 앞 문장은 반대 방향(긍정·장점)이어야 함
- also have downsides앞에서 "장점(upsides)"이 다뤄졌고, 박스 이후로는 "단점"이 전개되어야 함
- 핵심 소재: cute and beautiful designs (긍정부정 전환 시점)

Step 2 | 각 위치 단절 검증

위치	앞 문장	뒤 문장	단절 판정
①	사람들이cute/beautiful 디자인에 본능적 관심을 보인다(긍정)	However, 두 가지 다른motivation을 유발한다(긍정 흐름 계속)	x 단절 없음
②	However, 두 가지motivation 유발(긍정)	cute → nurturing motivation (긍정 흐름)	x 단절 없음
③	cute → nurturing motivation (긍정)	beautiful → self-expressive motivation (긍정)	x 단절 없음 (두 motivation 병렬 설명)
④	beautiful → self-expressive motivation (긍정)	Certain cute products → reduce performance expectations (부정 등장!)	✓ 긍정 → 부정 급전환
⑤	cute products의 단점(부정)	Beautiful designs의 단점(부정)	x 단절 없음 (둘 다 단점)

Step 3 | 박스 삽입으로 단절 해소 검증

④ 자리에 박스를 삽입하면 흐름은다음과 같이 정렬된다.

(③) beautiful → self-expressive motivation 설명 → [박스] But ~ designs also have downsides → (④) Certain cute products → reduceperformance expectations.

→ "motivation의 장점" → "단점이 있다" 선언(박스) → "구체적 단점1: cute의 단점" → "구체적 단점2: beautiful의 단점"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완성된다.

Step 4 | 정답 도출

→ 정답④. K-1(단타 싸움)으로앞뒤 두 문장만 비교한 결과, K-4(긍정→부정 급전환)가 정확히 발견된 단절 지점이다. K-2(박스 시그널But ~ downsides)와의 일치도100%다.

어법

PLAYBOOK

5. 빈출 함정BEST 3

함정1 | 내용 예측으로 답 추정

"이 글 전체가 무슨이야기일까"를 추론한 뒤 답을 찾는 학생이 가장 많이 틀린다. 평가원은 의도적으로 지문 전체의 흐름은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설계한다. 정답은 "전체 흐름"이 아니라 "한 지점의 단절"에서 결정된다. 다섯 선택지를 독립적인 미니 시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함정2 | 박스 문장을 "주제처럼" 읽기

박스 문장은 보통 보충 정보 또는 흐름의 전환점이지 글의 주제가 아니다. 박스를 주제로 받아들이는 순간, 정답이 ①·② 쪽으로 끌려가는 함정에 빠진다. 박스는 "앞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단서일 뿐이다.

함정3 | 미세 단서(관사·대명사) 미관찰

박스 문장의 정관사 the, 지시사 this-these, 대명사 they-it은 정답 위치를 결정짓는 미세 단서다. 학생들은 단어 뜻에 집중하느라 이 기능어들을 그냥 지나친다. "박스를 읽기 전에 기능어부터 먼저 본다"는 순서를 체화해야 한다.

6. 시험장 체크리스트

※ 목표 시간 : 문항당 90초 (3점 문항은 120초)

- 박스 문장 시그널(연결사·지시사·대명사·정관사)을 먼저 분석하였는가?
- 박스로 인해 "앞 문장에 있어야 할 것"을 명확히 파악하였는가?
- 지문 전체를 이해하려 하지 않고 선택지 앞뒤 두 문장만 비교하였는가?
- ①~⑤ 각 위치에서 명시적 단절(지시사·정관사) 또는 내용적 단절(±전환)을 검토하였는가?
- 박스 삽입 후 단절이 해소되는지 검증하였는가?
- However가 연속으로 등장하지 않는지 확인하였는가?
- ①·② 위치에 끌리는 무의식적 편향에 빠지지 않았는가?

시험장 명령 ★

박스를 먼저 본다.

다섯 위치 중 단절이 일어난 한 곳을 찾는다. 그게 전부다.

05. 어법

암기가 아닌 자리. 자리부터 보고, 형태는 나중에 본다.

수능 어법은 문법 규칙 시험이 아니다.
단어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가를 묻는 자리 시험이다.

1. 출제 원리 — Grammar가 아닌 Usage

수능 어법은 문법 규칙의 암기를 묻지 않는다. 단어가 그 자리에 올 수 있는가(Usage)를 묻는다. 영어는 동사를 중심으로 앞에 주어, 뒤에 목적어·보어가 배치되는 자리 중심의 언어이며, 어법 문항은 이 자리 감각만 있으면 해석으로 풀린다. 시중 문법서의 1,000여 개 규칙을 외울 필요가 없다.

어법은 지식 게임이 아니라 해석 게임이다.
정동사 자리인가 비정동사 자리인가, 자리부터 본다.

2. 정답 영역 — 동사 관련 + 관계사 = 90%

최근 14년치 기출 분석 결과, 어법 정답의 약90%는 다음 두 영역 안에서 결정된다. 학생은 5개 선지 중 이 두 영역에 속한 것을 먼저 검토하면 된다.

우선순위	정답 영역	확인 사항
1순위	정동사 / 비정동사 자리	이 자리는 동사가 와야 하는가, 와서는 안 되는가
2순위	수일치(단, 명백한 단복수 제외)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는가
2순위	능동수동(단, ing는 자리 문제)	주어가 행위 주체인가 대상인가
2순위	관계대명사vs 관계부사	관계사 뒤 문장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2순위	who / which / that 선택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3. 정답 불가 영역 — 즉시 패스

다음 세 영역은 출제 상 정답이 되기 어렵다. 5개 선지 중 이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보이면 근거 분석 없이 빠르게 통과시키고 다른 선지를 검토한다.

영역	왜 정답 불가인가
수일치(너무 명백한 경우)	주어 단·복수가 한 눈에 보이면 출제자가 정답으로 만들지 않음
시제(가변성 있는 경우)	현재·과거·완료 모두 문맥상 가능하면 정답이 갈리지 않음
주격 관계대명사(who/which)	선행사가 사람이면who, 사물이면which — 너무 명백

이 세 영역에 매달리면 시간만 잃는다.
출제자는 학생이 이 영역에 시간을 쓰도록 유도하는 함정 선지로 활용할 뿐이다.

4. 핵심 함정 — ing가 보이면 자리부터 본다

학생들의 90%가 잘못 접근하는 영역이다. ing가 밑줄로 등장하면 능동/수동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동사 자리인지를 묻는 것이다. 핵심 질문은"이 자리에 정동사가 올 수 있는가"이다.

상황	판단	예시
문장에 이미 동사가 있음	ing는 수식 역할(OK)	A man <u>singing</u> on the stage is my brother.
문장에 동사가 없음	정동사가 필요(ing 불가)	A man <u>sing</u> on the stage. (X) → sings (O)

동일한 원리가 동사원형(perceive, hunt 등)이 밑줄에 등장할 때도 적용된다. 그 자리가 정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to부정사·동명사·분사가 와야 하며, 동사원형은 올 수 없다. 자리부터 본다. 형태는 그 다음이다.

5. 어법 풀이 4단계 절차

5개 선지를 받았을 때 다음순서로 처리한다. 절차를 지키면 평균 40초~60초 안에 정답 도출이 가능하다.

Step 1 | 선지 5개를 영역별로 분류(5초)

- 정동사/비정동사 자리 관련: ★ 최우선
- 동사 관련(수일치·능수동·시제): ★
- 관계사 관련: ★
- 기타(대명사·전치사·부사·형용사 등): 후순위

Step 2 | 정답 불가 영역 즉시 소거(5초)

명백한 수일치, 가변성 있는 시제, 주격 관계대명사 선지를 우선 정상 처리하여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Step 3 | 자리 분석 — 정동사가 필요한가 (20초)

남은 선지 중 동사 형태(원형·ing·p.p.·to부정사)가 밑줄에 있는 것을 골라 자리를 본다.

- 문장 내 다른 동사가 이미 존재하는가?
- 그 자리는 주절의 정동사 자리인가, 수식어 자리인가, 진주어/진목적어 자리인가?
- 형태가 자리에 맞지 않으면 정답.

Step 4 | 관계사·기타 영역 검토(10초)

정동사 자리 문제가 없다면 관계사 절을 검토한다. 관계사 뒤 문장의 완전성(주어·목적어·보어 누락 여부)을 확인한다. 그래도 정답이 없으면 기타 영역(대명사·부사 등)으로 이동한다.

6. 실전 적용 |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9번

Changes in the degree of closeness ① are quite important in managing emotional intensity. Take, for example, emotions induced by television. Closeness and familiarity are important in making the fictional environment more ② real. Accordingly, most TV shows are set in the present or in a time within the memory of the viewers. Most characters are supposed to be types with whom we are familiar.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 make it easier for us ③ perceive the imaginary story to be a real one. In other circumstances, the closeness variable is used to reduce emotional intensity. Television entertainment tends to place social problems involving violence in another time and place, letting us watch those fictionalized characters search for solutions to our problems in settings ④ safely distanced from our own. When violence occurs in a contemporary setting, it is generally the product of the interaction of police and criminals — again, it is ⑤ removed from the lives of good citizenry.

- ① are ② real ③ perceive ④ safely ⑤ removed

Step 1 | 선지 영역별 분류

선지	형태	영역
① are	정동사(복수형)	수일치
② real	형용사	보어 자리(기타)
③ perceive	동사원형	정동사/비정동사 자리★
④ safely distanced	부사과거분사	수식(기타)
⑤ removed	과거분사	수동태

→ ③이 정동사/비정동사 자리 영역에 해당하여 최우선 검토 대상.

Step 2 | 정답 불가 영역 소거

- ① are: 주어'Changes'가 명백한 복수수일치 너무 명백정답 불가 통과
- ⑤ removed: it is + p.p. 수동태 형태주어it(=violence)이removed의 대상정상

Step 3 | ③ 자리 분석

해당 구문: make it easier for us ___ perceive the imaginary story...

- 구문 분석: make + it(가목적어) + easier(목적격보어) + for us(의미상 주어) + [진목적어]
- 이 자리는 진목적어자리 **to부정사가 와야 함(to perceive)**
- 그러나 문제는 동사원형perceive가 들어가 있음 **자리에 맞지 않는 형태**

Step 4 | 정답 도출

선지	판정 근거	결과
① are	주어Changes 복수, 수일치 명백정답 불가 영역	정상
② real	make + 목적어 형용사 보어→ 5형식 구조 정상	정상
③ perceive	진목적어 자리에 to부정사가 와야 함(to perceive)	정답
④ safely distanced	settings (which are) safely distanced — 후치 수식 정상	정상
⑤ removed	it is removed (수동태) — 주어가removed의 대상	정상

→ 정답③ perceive → to perceive. "이 자리에 정동사가 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해결 되는 전형적 자리 문제다. 문법 규칙을 외운 학생이 아니라, 구문 자리를 보는 학생이 푸는 문제다.

7. 빈출 합정 BEST 3

합정1 | 문법 규칙으로 풀려는 시도

"이건 동명사이고 이건분사니까..."라며 형태 분류부터 시작하는 학생은 매번 시간이 부족하다. 어법은 자리부터 보고 형태는 나중에 본다. 형태 분류는 절차의 마지막 단계지 시작점이 아니다.

합정2 | 정답 불가 영역에 매달리기

명백한 수일치(주어 단·복수 한눈에 보임), 가변성 있는 시제, 주격 관계대명사(who/which) — 이 세 영역에서 정답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학생들은 "혹시" 하면서 매달린다. 이 영역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라. 다른 선지에 답이 있다.

합정3 | ing를 능수동으로 해석

밑줄에 ing가 등장하면 학생90%가 "능동인가 수동인가"로 접근한다. ing가 밑줄이면 능수동이 아니라 정동사 자리인가의 문제다. "문장에 이미 동사가 있는가"만 확인하면 끝난다. 있으면ing 정상, 없으면 ing 불가.

8. 시험장 체크리스트

※ 목표 시간 : 문항당 40~60초

- 5개 선지를 영역별(정동사·동사관련·관계사·기타)로 먼저 분류하였는가?
- 정답 불가 영역(명백한 수일치·가변 시제·주격 관계대명사)을 즉시 통과시켰는가?
- 정동사·비정동사 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검토하였는가?
- ing나 동사원형이 보이는 자리에서 "정동사가 필요한가"를 먼저 물었는가?
- 관계사 절은 뒤 문장의 완전성(주어·목적어·보어 누락)을 확인하였는가?
- 문법 규칙을 외워 적용하려 하지 않고 구문 자리로 해석하였는가?
- 한 선지에 1분 이상 매달리지 않았는가?

시험장 명령 ★

이 자리에 정동사가 필요한가
그 한 질문만 다섯 번 반복한다. 어법 풀이는 그게 전부다.

PLAYBOOK
